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회 테러 생존자 “두렵지만, 신앙 포기 않을 것”



지난해 시리아 다마스쿠스 드웨일라 지역에 위치한 성 엘리야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가족 7명을 잃은 생존자가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56세 생존자 엘리아스(Elias)는 최근 당시 테러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2025년 6월 22일 주일 저녁 미사 도중 발생한 폭탄 테러로 두 형제와 누이, 친척 등 가족 7명을 잃었다. 당시 공격으로 총 25명이 숨졌다. 엘리아스는 그 테러범이 폭발을 일으킨 교회 입구를 바라보며 “14년 동안 내전을 겪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며 “그것은 학살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성 엘리야 교회에는 약 300명이 모여 있었다. 가족들은 고모의 별세 1주기를 맞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상태였다. 엘리아스는 “정문 쪽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테러범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순간 엘리아스의 형제 게리에스와 부트로스, 그리고 다른 교인 한 명이 테러범에게 몸을 던졌다. 이후 테러범이 배낭 폭탄을 터뜨리면서 네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다. 나중에 확인된 배낭 안에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나사못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아스는 “형제들과 교인이 테러범을 바닥으로 밀어붙인 덕분에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 역시 폭발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허벅지에는 파편이 박혔고, 현재까지도 금속 편이 삽입된 상태다. 그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변한 것 같았다”며 “성상들이 떨어지고 천장이 무너졌다”고 회상했다.

아내 하난(Hanan)은 폭발 직후 다섯 자녀를 찾아 폐허 속을 헤맸다고 증언했다. 특히 딸 사라는 얼굴과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왼쪽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난은 “아이들은 지금도 작은 소리만 들려도 놀란다”며 “불꽃놀이 소리에도 공격이 시작된 줄 안다”고 말했다.

부부는 현재 시리아를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가 지목된 이후, 지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엘리아스는 “아이들을 위해 떠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도어(Open Doors)는 현지 상담팀 운영과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60명의 상담 사역자를 배출했으며, 성경 배부와 생계 지원, 기도 후원 사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14:8-9)

하나님, 테러로 인하여 두려움 앞에 있는 시리아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박해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두려움 앞에 늘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분명한 하늘 소망을 주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씀이 시리아 교회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독일 카를스루에에 9천 명 운집… “박해받는 기독교인 위해 기도”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오픈도어 데이즈 행사에 3일 동안 약 9천 명이 참석해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에 동참했다. 독일 오픈도어와 Jesus.de에 따르면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의 날과 기도회, 본행사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부르키나파소, 북한, 멕시코, 중앙아시아 출신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각국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와 차별의 현실을 접했다. 강사들은 자신의 고난과 신앙 이야기를 직접 나누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비나는 2021년 교회 자살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 출신 정규 목사는 굶주림과 탈북, 수용소 생활 경험을 전하며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카드를 대형 십자가에 걸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찬양 공연도 이어졌다. 한편 독일 오픈도어는 아프리카 지역 박해받는 기독교인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어라이즈 아프리카’ 출범도 발표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9-10)

하나님, 독일에서 주의 몸 된 교회가 함께 모여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더욱 반석 되신 주께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가 세우신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주께 붙들린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소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을 더욱 일으켜 주사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동일한 생명을 가진 예수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세르비아, 반정부 시위 격화… 베오그라드서 경찰·시위대 충돌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23일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 정부의 부패와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일부 청년 돌격대 그룹들이 진압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시위대는 돌과 유리병, 화염물 등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 가스 와 스프레이로 대응했다. 경찰은 23명을 체포했으며 도심 주요 지역을 봉쇄해 추가 충돌을 차단했다. 이번 시위는 2024년 11월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기차역 참사 이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시위대는 23일 조기 총선과 법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부패와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위에는 경찰 추산 3만 4,3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됐지만, 주최 측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와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시편 146:6-7,10)

하나님, 재작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패와 범죄를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또다시 격화하고 있는 세르비아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부패한 권력에 지친 그 땅의 영혼들이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진실함으로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르비아의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 모든 백성들이 지금도 세르비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집권당 의원들에 맞춤형 성경 전달... “기독교 가치 회복 기대”



도미니카공화국 하원의원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성경이 전달됐다. 13일(이하 현지시각)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미니카복음주의연맹 (Alianza Evangélica Dominicana, AEDO) 산하 도미니카교회사회복지부가 주관했으며, 책임자인 로렌조 모타 킹(Lorenzo Mota King) 목사와 사무총장 사무엘 구스만 벨트레(Samuel Guzmán Beltré) 목사가 참석했다.

에비덴시아스 디지털에 따르면, 이번 성경 배포는 우선 집권당인 현대혁명당 (Partido Revolucionario Moderno, PRM)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향후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스만 벨트레 사무총장은 스페인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참석한 의원들이 매우 기뻐하고 감사해했다”며 “도미니카공화국은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국가이며, 많은 상·하원의원들이 신앙인이다. 이번 행사는 큰 격려와 기쁨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성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스만 벨트레 사무총장은 “첫 번째 모임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도미니카해방당과 푸에르사델 푸에블로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성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자들이 성경을 받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프로젝트가 상원에서 진행됐다. 로렌조 모타 킹 목사는 “상원의장과 의원들이 성경을 열렬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본회의장에서 직접 성경을 배포할 기회를 가졌다”며 “오마르 페르난데스 의원을 비롯해 여러 상원의원들이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큰 열정으로 성경을 받아들였다”며 “모두가 성경을 손에 들고 싶어했고, 이 특별한 선물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여러 사역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든 상·하원의원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4-15)

하나님, 대부분의 인구가 신자인 도미니카공화국의 위정자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성경적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알아 이 땅의 영혼들이 곳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주님과 참된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일이 단번의 행사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를 거룩한 예수교회로 세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6명 체포… 주일학교 운영에 ‘범죄’ 적용

중국에서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 6명이 사기 및 공공질서 저해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실제 체포 이유가 어린이 대상 주일학교 운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시의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인 웨이융창, 허진바오, 취안샤오룽, 룽젠, 청융빙 등 남성 5명과 저우구이아 등 총 6명이 최근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미성년자 활동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이나에이드는 실제 문제가 된 활동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또 당국은 교회가 받은 십일조와 헌금을 불법 수익으로 간주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은 미등록 교회들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고 차이나에이드는 설명했다. 차이나에이드 설립자 밥 푸 박사는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시민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을 공공질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디모데후서 3:12-14)

하나님, 종교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거짓 혐의를 만들어 체포하는 중국 당국을 꾸짖어 주시고, 주일학교를 문제 삼아 복음 전파를 막는 모든 악한 일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주의 교회들을 여러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켜 주소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예수교회로 일어서게 하사 고난 중에도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중국의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키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 프랑스, 유치원·초등학교 학대 의혹 확산… 3세 피해 주장도

프랑스에서 유아·초등 교육기관 돌봄 인력들의 폭력·성폭력 의혹이 잇따르며 당국이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가 프랑스 24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파리 수사당국은 공립 유아학교 84곳과 초등학교 약 20곳에서 낮잠·점심시간·방과 후 활동 중 비(非)교직 인력에 의한 신체·성폭력 등 학대 의혹 100여 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리 시내 유아학교·초등학교 6곳 중 1곳꼴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파리 7구 한 어린이집 관련자 16명을 미성년자 성폭행·성폭력·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 가족 변호인은 성폭행 의혹 피해 아동 중에는 3-4세 유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그동안 수년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돌봄 인력 채용·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학교 돌보미는 점심·낮잠·방과 후 시간 아동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지방 당국이 채용하며 전문 교육 없이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는 올해 4월까지 학교 돌보미 78명의 자격을 정지했으며, 이 중 31건은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라기 2:16)

하나님, 교육기관 돌봄 인력들에 의한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수년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이들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심을 프랑스 위정자들이 깨달아 하나님 경외함으로 빠른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 오랜 시간 신체적, 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아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에게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프랑스의 다음세대가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리로다” 미등록 교회 목회자 아들 수개월째 구금... 의료 지원도 차단돼 우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쿠바 당국이 16세 기독교인 소년을 장기간 구금하고 의료 치료까지 거부하며, 미등록 복음주의 교회를 운영하는 부모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금된 소년은 조나단 무이르 부르고스(Jonathan Muir Burgos)로, 지난 3월 아버지 엘리에르 무이르 아빌라(Elier Muir Ávila) 목사와 함께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엘리에르 목사는 조사 후 석방됐으나, 조나단은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이 가족이 쿠바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이념적으로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가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차례 구금과 사망 협박, 심리적 고문 등을 겪어 왔으며, 당국의 탄압으로 교회 교인 60명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당국은 이 교회를 미등록 교회로 간주해 법적 승인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단의 건강 상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한포진(dyshidrosis)’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치료가 중단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전한 바에 따르면, 조나단은 구금된 이후 단 한 번도 약을 처방받지 못했으며, 빈대가 들끓는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피부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소속의 한 익명의 지역 옹호 활동가는 “이 사건은 쿠바 시민들이 맞닥뜨린 종교의 자유 탄압과 평화적 시위에 대한 처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조나단의 사건은 명확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조나단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의료 지원 제공,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오픈도어선교회 대변인은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상황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시편 20:5-6)

하나님, 수개월의 구금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며 고통 중에 있을 조나단 형제를 붙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쿠바 공산정권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한 탄압을 멈추게 하소서. 주님, 주의 기름 부음 받는 백성을 주가 친히 구원하시는 줄 아오니, 주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역사하사 쿠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 나아가는 그 땅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고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인도, 마니푸르서 목회자 3명 피살... 두 공동체 간 인질 사태 확산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목회자 3명과 운전기사가 공격을 받아 숨진 이후 보복성 납치가 이어지며, 기독교 공동체 간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최소 20명의 민간인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쿠키-조(Kuki-Zo) 공동체 소속 목회자들이 추라찬드푸르에서 열린 연합 침례교회 행사 참석 후 강폭피(Kangpokpi) 지역으로 돌아가던 중 매복 공격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희생자는 품당 시틀호우 목사, 카이고올룬 목사, 파 오고올렌 목사이며, 4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일부 쿠키-조 단체는 나가(Naga) 무장세력이 공격 배후라고 주장했고, 이후 쿠키-조와 나가 공동체 간에도 연쇄적인 보복 납치가 발생했다. 쿠키-조 측은 공격 세력이 도주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주민들이 나가 주민들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가 지역 학생단체는 별목 작업을 위해 현지에 있던 쿠키-조 주민들을 추가로 억류했다. 인도군 중재를 통해 일부 인질이 상호 석방됐지만, 현재까지 쿠키 주민 14명과 나가 주민 6명 등 총 2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1)

하나님, 인도 마니푸르의 쿠키-조 공동체와 나가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 납치 사건을 잠잠케 하옵소서. 기독교인이 다수인 부족 공동체들 안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위기 앞에 미움과 원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교회의 어두운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며,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두 공동체 되게 하소서.

▲ 멕시코, 베라크루스 복음주의 교회들, 폭력 증가 속 '평화 차량기도회' 개최

멕시코 베라크루스의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 최근 폭력과 치안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평화 회복을 촉구하는 차량 행진과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고 에반헬리코디지털이 25일 보도했다. 성도들은 지난 23일 흰색·빨간색·남색 계열의 옷을 입고 풍선과 음향 장비를 준비해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으며, 행진은 플라사 데 라 소베라니아에서 시작해 말레콘 대형광장에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베라크루스를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이어지는 폭력과 살인, 실종, 강제이주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동체 기도를 폭력에 맞서는 영적·사회적 저항의 방식으로 소개했다. 최근 치아파스·게레로·미초아칸·누에보레온 등 여러 지역 교회들도 철야기도회와 차량 행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당국에 치안 강화와 평화 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2-13)

하나님, 멕시코 전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 문제에 대항하여 찬양과 기도로 전쟁하기로 일어난 그 땅의 교회를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한 예수교회를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멕시코의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